

직할교구 주지 인사고과 빠르면 '연내' 시행될 듯

종단 주요과제...사무처 '실무작업 진행'

빠르면 연내에 직할교구 주지를 대상으로 한 인사고과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년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종단 4개년 발전계획 가운데 '주요 과제'의 하나로 주지 인사고과 시행이 들어 있었다 때문이다. 이날 회견에서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직할교구 사암에 한해 주지 인사고과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할교구 주지 인사고과 제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통해 포교 활성화와 불교중흥을 이루겠다는 취지이다.

직할교구 주지 인사고과 제도는 평가 항목을 정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회견에서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예를 들어 점수를 1000점으로 했을 때, 850점 이하이면 재임이 불가능하다"며 총무행정(200점), 포교(200점), 재정(350점) 등의 평가 항목을 제시했다. 총무부장 스님은 "감점 제도도 도입하여, 선거관리를 미흡하게 했거나, 사찰에 화재가 발생하면 감점할 것"이라면서 "이를 총합하여 850점 이하이면 재

임이 안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할교구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인사고과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지 인사고과제도는 당분간 전국 교구본사로 확대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려면 관련 중헌종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무부장 영담스님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물론 과제도 있다. 합리적인 평가 항목을 만들고, 객관적으로 점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인사고과 제도를 다룰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주지 인사 고과제가 시행되면 총무행정을 비롯해 포교·복지·재정·불사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할교구의 대부분 사찰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포교의 성과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2000만 명이 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종책시행은 포교 활성화는 물론 불교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라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성수 기자

청년 활동가들에게 관심을...



현장에서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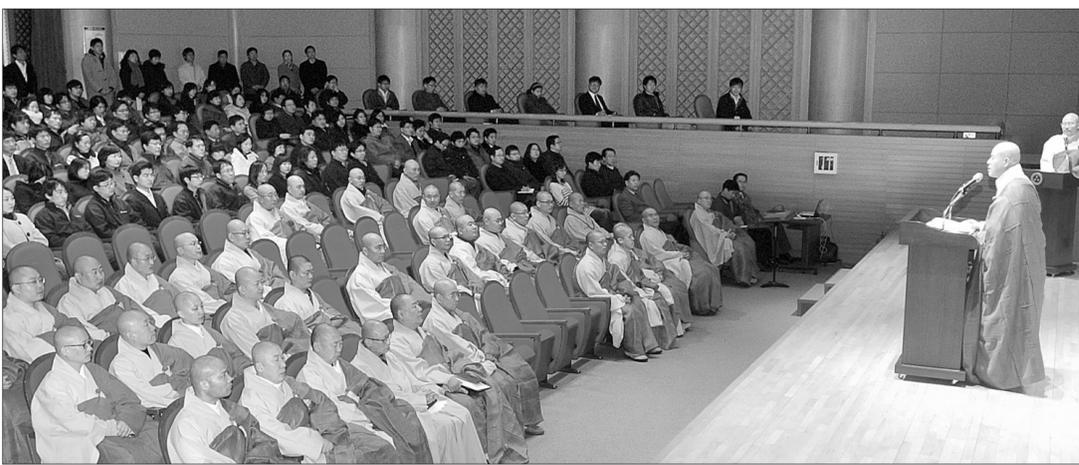
지난 13일 '2030 청년 불자를 찾아서'라는 코너의 취재를 위해 박경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을 만났다. 짧은 인터뷰지만 대학생 포교 활성화와 불교 중흥을 위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불교가 좋다"는 마음 하나로 대불전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박경호 대불전 회장을 비롯해 많은 청년 활동가들이 다양한 불교계 단체에서 활동 중이다. 넘쳐나지 않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는 인색한 편이다. 칭찬과 격려보다는 "일선 포교 현장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찾아볼 수 없다", "단체 활동이 예

전만 못하다"는 등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침체되고 있는 청년 불교운동의 현실은 젊은 불자들의 신심과 신년 부족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관심과 지원 없이는 청년불교 활성화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불교의 발전과 중흥을 위해 미래 한국불교의 주역인 청년 불자들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젊은 이들의 종교참여가 줄고 있는 것은 불교는 물론 이웃 종교 역시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신년을 맞아 청년 불자들의 활동에 비판과 안타까움을 표하기에 앞서 이들의 활동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종무원들이 힘을 모아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거행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종무원 조회에서 "불교중흥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각자가 주인의식을 철저히 가질 것을 강조했다.

"불교중흥, 우리에게 달려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무기관 조회서 강조

•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4개년 발전계획 발표까지 노력해 준 종무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결심할 당시 잘 할 수 있는 것은 '화합과 소통'이라는 생각을 했다. 후보 시절에는 '소통, 화합, 불교중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다. 불교중흥은 승가교육과 포교를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에 기본설계를 만들고 공약을 제시했다.

• 종단내 소통은 되는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과연 종무원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단 내에서는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말 인사와 관련 몇 가지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종무원들이 각자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했다. 주어진 역할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종단의 주인이다. 원하지 않는 부서의 업무를 받아도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면 금년 말 인사에서 충분한 대우가 있을 것이다. 종무원들과 내·외적으로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권한의 70%만 사용

그동안 종단에서 여러 소임을 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종무원들이 힘을 모아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거행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종무원 조회에서 "불교중흥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150여명의 종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조회의 총무원장 스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 포교 위한 로드맵은 백년대계 불교중흥은 '종무원 마음자세' 서 시작 주어진 역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인 권한의 30%는 소통 위해 남기길 당부"

면서 갖고 있는 권한의 70%만 사용한 것이다. 30%는 아랫사람과 위사람의 소통의 연(緣)으로 남겨 놓았다. 권한을 100% 행사하면 독재나 독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권한을 70%만 쓰고 30%는 소통의 여지로 남겨 놓아야 한다.

• 교육과 포교가 원동력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을 이룩해야 한다. 신도 없는 종단은 있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수행자가 안 나오면 종단은 없다. 교육과 포교만이 불교중흥의 원동력이다. 교육과 포교에 종무원들이 초점을 맞

• 분담금 의존도 낮추고

분담금에 의존해 종단을 운영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 중앙 분담금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사업을 통해 해나가야 한다. 일부 이론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 종단 재정이 나이지 않으면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한편 이날 조회에서는 즉석에서 총무원장 스님에게 건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팀장급 이하 종무원과 총무원장 스님의 간담회 개최를 비롯해 불교신문 관련 사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총무원장 스님은 "창간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획실장 원담스님이 종단 4개년 발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한국 불교가 새로운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4년 동안 노력한 결과에 따라 지표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 뜻을 모아 33대 집행부의 계획을 완수하도록 원력을 세우고 열과 성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종단 슬로건 공모 결과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성수 기자

• 100년 앞을 내다보며

4년 동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은 종단의 100년을 위한 로드맵이다. 교육과 포교를 위한 로드맵은 4년 내에 이뤄질 수 없고, 10년·20년·100년을 보고 가야 한다.

종평위·범대위

'일원화'

종단 차원의 종교평화 실천 활동 관련 기구가 일원화됐다. 총무원 사회부는 범불교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로 양분된 종교평화 관련 업무를 합쳐 효율적인 구조로 조직을 개편했다. 지금까지 종평위는 사회부가 관리운영했고, 지난 2008년 8·27 범불교대회를 기점으로 조직된 범대위는 사회부 지원기구로 각각 따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업무 중복과 예산 효율성 저하 등이 발생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업무 집중성을 도모하기 위해 단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기조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종평위와 범대위를 병렬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종평위는 종교평화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예방업무, 종교평화 대응 등을 주업무로 삼고, 범대위는 범불교적 대응을 위한 사건 발생시 회의체로 운영된다.

종평위 위원장과 범대위 위원장은 사회부장이 함께 맡는다. 대신 범대위 사무총장직은 상근이 가능한 외부 교역직 스님을 선임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범대위 파견 행정관은 사회부에 직제 편제하여 사회부 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범대위 사무실은 회의실로 운영되고 업무 관련 사무는 3층 사회부로 지난 18일 이전 조치했다.

하정은 기자 torato77@ibulgyo.com

'향일암' <1면서 계속>

대웅전 화재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초하루 법회에 참석한 최순자 신도회장은 "대웅전은 소실됐지만 관음성지인 향일암은 관음전과 융원전, 삼성각 등 영험 많은 법당이 있어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일암 김만재 사무장도 "대형 후원과 요새를 갖추고 있어 300여 명이 동시에 철야정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일암 사하촌에서 14년째 갖가지 가게를 운영하는 김경수 씨는 "관음성지가 하루빨리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향일암은 이날 말까지 불탄 대웅전 자리에 임시 법당을 설치하고 참배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또한 대웅전 복원을 위해 여수시와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

봉녕사 승가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편입생 모집 공고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 명

◆ 지원자격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
(초발심사경문, 염불실기, 불교기초지식)

◆ 도착일시

• 2010년 2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음력 12월 19일)

◆ 시험일자

• 2010년 2월 3일(음력 12월 20일)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 2) 은사스님 추천서
-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 용)
- 5) 최종학력 증명서
- 6) 사진(3×4) 3매

◆ 준비물 : 만의, 장삼, 필기도구

◆ 버스운행 : 수원역 앞에서 봉녕사 승가대학 버스를 오후 1시~4시까지 운행함.

◆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승가대학
- 전화 031) 256-4127
- 팩스 031) 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 표 엄

봉녕사 금강율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봉녕사 금강율원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 명

◆ 지원자격

•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 졸업생 스님들의 입학도 가능)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불교교리, 범망경)

◆ 도착일시

• 2010년 2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음력 12월 19일)

◆ 시험일자

• 2010년 2월 3일(음력 12월 20일)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율원 소정양식)
- 2) 수행이력서
- 3) 은사스님 추천서
-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 5) 건강진단서(종합병원 용)
- 6) 승가대학 졸업증명서
- 7) 사진(4×5) 3매

◆ 준비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금강율원
- 전화 031) 256-4127
- 팩스 031) 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금강율원 율주표엄 율원장 대우